

## 현대 우리 나라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

鄭賢淑·金鎮玖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Symbolism of Uniform in the Modern Korea

Hyun Sook Chung and Jin Goo Kim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 目次

Abstract	3. 직 업
I. 서 론	4. 상 황
II. 이론적 배경	5. 종 교
III. 유니폼의 개념 및 문화에 따른 유니폼의 변화	6. 집단 소속
1. 유니폼의 개념	7. 청결성
2. 문화에 따른 유니폼의 변화	8. 권 위
IV. 현대 우리 나라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	9. 우월성
1. 성 별	10. 계 급
2. 연 령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ymbolism of uniform in modern Korea, based on the symbolic interaction theory. I classify a representative symbol among many symbols in one uniform. I found the sex, age, occupation, situation, religious, group belonging, cleanliness, authority, superiority, and rank symbol in the modern Korean uniform.

### I. 서 론

동물과 인간을 구별시켜 주는 것은 인간만이 상징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상징을 한다는

것은 의미를 창조하고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징은 언어로 전달되지만, 어떤 것은 제스처, 동작, 그리고 사물과 같이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 상징은 한 문화내에서 공유된 의미를 갖는다. 광범위하게 수

용되고, 공유된 의미를 갖는 복식의 상징은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복식은 성, 연령, 직업, 국적, 사회적 계급, 종교, 정치적, 경제적 상태, 집단소속, 권위, 가치관 등을 나타내는 無言의 의사 전달체이다. 복식에 사용되는 상징성의 의미가 잘 이해된다면, 상징은 관찰자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현대 우리나라의 유니폼은 매우 다양하다. 산업이 발달하고 조직이 다양해지며 복잡한 사회생활로부터 어떤 질서를 새우기 위하여 더욱 유니폼이 많아졌다. 착용한 유니폼을 보고 착용자의 직업과 집단소속을 알 수 있다. 유니폼의 상징성으로 질서를 부여받고 있으며,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단결심을 부여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근거로 하여 상징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며 질서와 단결심을 고취시켜 주는 유니폼, 그 중에서 현대 우리나라의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실제의 유니폼을 관찰한 후 복식학자인 Horn과 Kaiser의 이론을 따라서 상징성의 체계를 분류하였다. 유니폼의 상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쉽게 이해되는 언어이며 이러한 상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해석하거나 평가하도록 돕는다.

## II. 이론적 배경

G. H. Mead는 "사람에게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mind)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마음은 주변의 대상(물)에게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찾고, 언어라는 의사소통의 상징적 수단을 이용하고, 추상적 상징을 해석할 능력을 지녔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힘은 사람이 사회집단 속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할 때에 비로소 활성화되며, 이 자아는 주체적인 나(I)와 객체적인 나(me)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과정적 개념으로서, 인간은 마음속에 행위의 여러 선택의 가능성을

두고, 예행을 할 줄 알고 미리 스스로 (I와 me사이에) 연습해 본 중에서 주어진 상황에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sup>1)</sup>고 하였다. 또한, 그는 "마음"을 내부의 상징적 전달이라고 하였으며, "자아"는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각 있는 사물이라고 하였고, "일단 한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면 이미지와 사물은 상징에 의해 명명되어질 것이고, 의식은 내적 대화이며, 무언의 의사전달이다. 반면에, 사고는 개인적인 경험이며, 의미있는 상징(significant symbols)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고는 일반화된 다른 행동의 관점에서 체계화된 행동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Mead의 이론에서 "의미있는 상징"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자극시킬 수 있는 반응이나 태도와 똑같은 반응과 태도를 자아 속에서도 일으키는 제스처를 뜻한다. 이와 같은 공유성이야말로 의사소통에는 본질적인 것이며, 언어가 이 의미있는 상징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적 상호작용, 특히 언어적 기호라든가 기타 물리적인 기호에 의한 의사소통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유한 능력<sup>3)</sup>이다.

Leslie A. White는 "상징을 한다는 것은 곧 의미를 창조하고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상징력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상징을 하는 데에 포함된 의미들은 감각으로 포착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다. 그리고 물리학적인 또는 화학적인 어떤 분석방법을 통해서도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聖水を 들고 있다. "성수는 보통의 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통 물과 구별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치는 수 백만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그 물을 부여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결정한다. 물론 이런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해될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sup>4)</sup>고 White는 말하였다.

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84, pp. 103-104.

2)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Tamotsu shibutani, "Mead, George Herbert", p. 85

3) 김경동, *op. cit.*, p. 234.

4) Leslie A. White, *이론용역, 문화의 개념*, 서울 : 일지사, 1984, p. 10.

그리고 그는 “우리는 물건, 행동, 음, 색 등 상징행위라고 하는 한 종류의 행위의 산물들인 한 부류의 현상들을 얻는다. 인간을 모든 다른 種의 동물들과 구분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물과 사건들이다. 즉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모든 문명 또는 모든 문화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렇게 중요한 현상들에 불일 하나의 용어인 상징물이란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는 “상징물이란 상징행위의 산물, 즉 상징행위에 의거한 사물 혹은 사건으로”<sup>5)</sup> 정의하였다.

Radcliffe-Brown은 “의미를 가진 것은 무엇이든간에 하나의 상징이고, 상징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면 무엇이든간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J. Beattie는 “상징은 보통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표시하거나 의미하고 있는 점이다. 즉, 상징은 어떤 사건이나 혹은 한 구체적인 실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이한 문화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권력, 집단 응집력, 가족적 혹은 정치적 권위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 즉 간혹 간접적으로는 상징물 자체에 극히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개념들, 또한 직접적으로 그들 자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개념을 표상하는 수단”<sup>6)</sup>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Thomas Carlyle은 그의 저서 ‘Sartor Resartus’에서 “인간은 상징에 의하여 인도되고, 지배되고, 행복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 사람은 어디서나 상징-상징으로 인식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음을 본다.”<sup>7)</sup>고 하였으며, 상징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Mead가 주장한 ‘의미있는 상징’중의 하나가 복식이다. 대부분의 상징은 언어로 전달되지만, 어떤 것은 제스처어, 동작, 그리고 사물과 같이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 상징은 한 문화내에서 공유된 의미를 갖는다.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공유된 의미를 갖는 복식의 상징은 사회에서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복식은 시각적 상징이나 無言의 상징의 사용을 통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無言의 言語’중의 하나이다. 복식은 성, 연령, 직업, 극적, 사회적 계급, 종교, 집단소속, 권위, 가치관 등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복식에 사용되는 상징성의 의미가 잘 이해된다면, 상징은 관찰자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Kaiser도 “외모 상징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각각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식의 상징은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요인이 되며 다른 사람과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복식 상징은 여러 다른 인간 행위보다 가시적이며 형태가 분명하다. 그러나 복식 상징에 부여된 의미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Rosencranz도 “복식 상징은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 이해되는 언어이며 이러한 상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해석하거나 평가하도록 돕는다.”<sup>9)</sup>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근거로 하여 상징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유니폼, 그 중에서 현대 우리 나라의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유니폼의 개념 및 문화에 따른 유니폼의 변화

#### 1. 유니폼의 개념

Roach & Eicher는 Uniform의 어원을 ‘Uniform : one form, all alike’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하나의 형태 즉 똑 같은 복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근본적으로 유니폼은 집단에 대하여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수단으로 고안되어졌다.”<sup>10)</sup>고 하였다.

5) *Ibid.*, p. 14.

6) John Beattie, *최계석 역, 사회인류학*, 서울 : 일지사, 1984, pp. 93~94.

7) Thomas Carlyle, *양주동 역, 영미수필선*, 서울 : 을유문화사, 1964, p. 253.

8)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 14, p. 155 & p. 184.

9) Mary Lou Rosencranz, *Clothing concept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72, p. 234.

10) M. E. Roach & J. 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 Y. : John Wiley & Sons, Inc., 1965, p. 127.

Langner는 “유니폼은 개인 또는 집단을 과시하고, 그 권위를 통치권력에 전환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sup>11)</sup>라고 하였다.

한 특별한 집단의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그의복에 의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집단의 규칙내에서 일치되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sup>12)</sup>. 유니폼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정의되어지며, 복잡한 조직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해 낸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니폼을 입는 목적은 그 조직체의 활동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한정하며, 조직체에 소속된 구성원을 그 집단의 목적에 순응하게 하고, 구성원의 지위, 신분, 계급 등을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명확하게 해주고, 그 조직체 내에서 발생하는 쓸데없는 충돌을 제거시켜 주는데 있다.

유니폼은 하나의 상징이며, 착용자의 직업을 나타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착용자의 개성을 억압하기도 한다.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에게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고, 그 집단의 목적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 속에서 뚜렷하게 직분을 나타내고,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며, 개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sup>13)</sup>.

만약 적군과 야군을 구분시켜 주는 유니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미개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쟁을 하는 사람의 유니폼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고, 또한 유니폼의 사용없이는 거의 전쟁이 없었을 것이다. 국제법과 반대되는 병사의 유니폼 사용을 금지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의하는 결과를 낳는 군축회의는 아마도 어떤 다른 조치보다 더 세계평화에 세계를 접근하게 할 것이다<sup>14)</sup>. 이것은 유니폼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 2. 문화에 따른 유니폼의 변화

### 1) 시대에 따른 유니폼의 변화

시대에 따라서 유니폼은 변화한다. 즉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유니폼은 변화한다. 만약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라면 군인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군인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군복이 화려해지고 장식을 많이 하게 되며, 중요한 유니폼으로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Hitler, Mussolini 그리고 Peron과 같은 파시스트 국가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식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잠깐 동안의 권력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하여 갈색 셔츠, 검정 셔츠 그리고 많은 장식을 한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은 그들의 직업에 위엄을 제공하였던 Laticlavan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Toga의 종류를 착용하였다<sup>15)</sup>.

또한, 십자군 전쟁시 중요한 역할을 한 갑옷은 오늘날의 군복과 역할이 비슷하며, 즉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같지만 집단을 구분하거나 계급을 알 수 있도록 그 시대에는 방패, 헬멧, 그리고 갑옷위에 착용한 슈르코에 문장을 그려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의 군복은 기장, 수장(袖章), 견장, 계급장, 색이 다른 군복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별로 변화가 없는 유니폼도 있다. 그 예로는 성직자의 복식을 들 수 있는데 중세의 전체 신체를 느슨하게 감싸는 형태와 주교관 등이 오늘날의 그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3세기의 여행시 남자에 의해 널리 착용되었던 Gardcorp가 변화되어 오늘날 아카데미 가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나라에 따른 유니폼의 변화

나라에 따라 문화는 다르며 문화에 따라 가치

11) Lawrence Langner, 박동준 역, 복장의 심리, 서울 : 유신문화사, 1981, p. 66.

12) Roach & Eicher, *op. cit.*, p. 127.

13) 田中道一,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유니폼론, 일본 의생활연구, Vol. 11, 1984, p. 16.

14) Roach & Eicher, *op. cit.*, pp. 126-127.

15) *Ibid.*, p. 125

관도 다르다. 그러므로 유니폼도 나라마다 다르다. 만약 모든 나라의 군복이 같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유니폼의 상징을 역이용하여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예가 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공했을 때 Welsh의 여인들을 하얀 바지와 빨간 코트의 유니폼을 착용한 영국 군인으로 잘못 알고 나폴레옹 군대는 뒤쪽에 보병 소총을 남겨두고, 그들의 배로 급하게 철수하였다. 그래서 영국은 나폴레옹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졌다<sup>16)</sup>.

이렇게 유니폼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군복은 전쟁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때때로 이러한 유니폼은 아주 표준화된다. 비록 장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명화된 나라의 경찰관 유니폼을 인지할 수 있다<sup>17)</sup>. 간호사의 유니폼 역시 모자나 색상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의 각 나라가 하나의 조직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보이 스카우트의 유니폼은 모든 나라가 장식에 있어서까지 같다.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유니폼의 상징을 다르게 인지한다면 상징적인 메시지가 잘못 해석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 IV. 현대 우리나라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

현대 우리나라의 유니폼은 매우 다양하다. 산업이 발달하고 조직이 다양해지며 복잡한 사회생활로부터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더욱 유니폼이 많아졌다. 거리를 지나면 유니폼을 착용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 착용한 유니폼을 보고 착용자의 직업이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 순경의 유니폼,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의 유니폼, 아파트 입구나 학교나 회사 등의 입구에서 자주 만나는 경비원의 유니폼, 병원의 의사, 간호사, 환자의 유니폼, 은행원의 유니폼 등 우리나라의 유니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우리는 특별한 행사나 의식, 즉 졸업식 등에 아카데미 가운의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러한 많은 유니폼의 상징성으로 질서를 부여받고 있으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빠르게 인식하게 해준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스포츠가 다양화되고 일반화되어 있으며,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등의 게임이 매일 진행되고 있으므로 게임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유니폼이다. 다양성, 일반성, 특수성의 성격을 지닌 유니폼은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필수적이며, 이러한 유니폼에 의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학자인 Horn과 Kaiser의 이론을 따라서 성별, 연령, 직업, 상황, 종교, 집단 소속, 청결성, 권위, 우월성, 계급으로 상징성의 체계를 분류하였다. 착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상황, 종교, 집단 소속, 청결성, 권위, 우월성, 계급 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현대 우리나라 유니폼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근거하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유니폼이 여러 상징을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상징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1. 성 별

보이 스카우트와 걸 스카우트의 유니폼은 성별을 나타낸다. <그림 1>은 보이 스카우트의 유니폼이며, 이것은 남성임과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스카우트의 정신을 나타낸다. 또한 수녀복과 사제복에서도 남녀의 구별이 뚜렷하다.



<그림 1> 보이 스카우트의 유니폼.

16) *Ibid.*, p. 126.

17) M. J. Horn,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p. 32.

## 2. 연 령

유치원생이 착용하는 원복, 초등 학생이 착용



<그림 2> 여중생의 교복.

하는 교복, 중학생, 고등학생이 착용하는 교복 등은 연령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2>는 여중생의 교복으로 여성임과 중학생의 연령, 소속 학교, 공부하는 학생 신분 등을 나타내고 있다.

## 3. 직 업

대부분의 유니폼은 직업을 나타낸다. <그림 3>의 유니폼을 보고 착용자의 직업이 환경미화원임을 알 수 있고, 상의에 착용하고 있는 노란색의 띠를 형광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기로 한다.

<그림 4>의 유니폼 착용자는 요쿠르트 배달원임을 알 수 있다.

## 4. 상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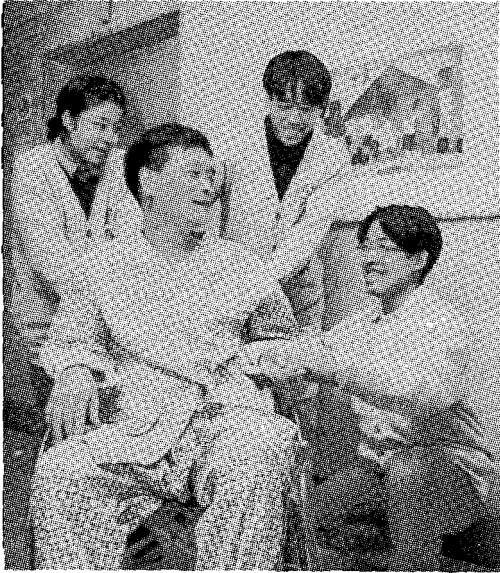
유니폼을 착용한 사람을 보고 어떠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무슨 상황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의사의 수술복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환자의 유니폼을 착용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그들의 신체 어딘가가 아픈 상태임을 나타내준다.



<그림 3> 직업이 환경미화원임을 나타내는 유니폼.



<그림 4> 요쿠르트 배달원의 유니폼.



<그림 5>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유니폼.

**5. 종교**

종교에 따라 성직자의 유니폼이 다르다. 유니폼은 종교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림 6>은 천주교를 나타내는 수녀임을 알 수 있고, 승복은 불교의 승려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종교적 유니폼은 성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종교적 계율을 따를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의 수도생활의 증거와 약속을 표시한다. 또한, 종교적 유니폼은 신성을 전달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권위와 지도력의 상징이다. 카톨릭 사제와 수녀들의 유니폼은 신성함, 깨끗함, 순수함과 관련된 상징성을 나타내며, 카톨릭 사제의 로마 칼라의 검정 수트는 도덕적 구속과 사회적 격리의 상징이다. 수녀복은 종교적 신념과 헌신의 상징이다.

**6. 집단 소속**

집단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것이 유니폼의 특성이다. 모든 유니폼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단결심을 고



<그림 6> 수난생활과 종교적 계율 그리고 신도를 위한 봉사와 신의 중임을 나타내는 수녀복.



<그림 7> 군대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조직의 목표를 증진시키는 군복.

취시킨다. 현대 사회는 조직이 다양하므로 유니폼도 다양하다. <그림 7>은 군대의 구성원임을 나타낸다. 군인의 군복 착용을 통해서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장벽을 쌓음으로써 사회적 통제를 가하며, 군대의 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다.

### 7. 청결성

청결성을 상징하는 유니폼은 많다. 간호사, 요리사, 실험복, 식품회사의 유니폼 등 다양하다. <그림 8>의 간호사복은 청결성도 나타내지만, 겹에 따라서 간호사인가, 보조 간호사인가 하는 계급을 나타내기도 한다. 요리사의 유니폼은 깨끗하게 음식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청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얀색 가운과 모자를 착용한다.

### 8. 권 위

권위를 상징하는 유니폼에는 재판관의 가운과 의사 가운, 경찰복과 군복 등이 있다. 의사의 하얀 가운은 초자연적인 힘과 권위의 상징이다. 가장 심각한 환자에게도 그의 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안심과 신뢰를 주는 중대한 의미를 전

달한다. 또한, 다른 상태에서는 사회적 금기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합법화시켜 준다. 의사와 간호사의 유니폼은 합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9>는 권위와 치료의 신뢰감과 합법성을 나타내는 의사의 유니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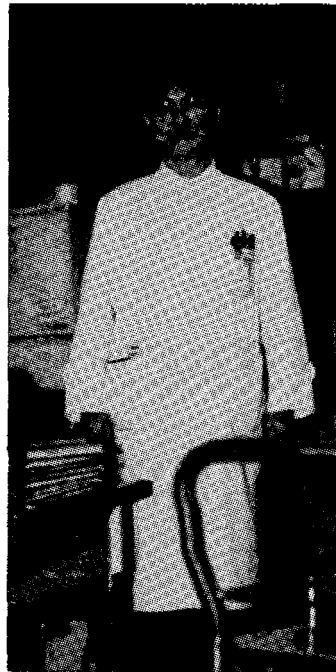
경찰복은 범죄자와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와 보행자, 음주 운전자에게는 위협적 권위의 표시이고, 길을 묻고자 하거나 도움을 청하고자 할 경우 반가운 권위의 표시가 된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려던 사람은 경찰 유니폼을 발견하고 그 상징성을 관찰한 후 무단횡단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림 10>은 권위를 나타내는 경찰의 유니폼이다.

### 9. 우월성

유니폼을 착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니폼은 확일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뱃지, 기장, 장식, 그리고 색상을 달리 사용하여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추기경의 유니폼은 성직자의 우월성을



<그림 8> 청결성을 상징하는 간호사복.



<그림 9> 초자연적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얀 의사의 유니폼.





<그림 10> 위협적 권위와 반가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경찰의 유니폼.

나타내고 있으며, 추기경이라는 높은 지위를 나타내 준다. 또한, 뛰어난 학식을 나타내는 대학교수들의 각모와 가운데 즉 아카데미 가운데 학식의 우월감을 상징한다. <그림 11>은 학식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유니폼이다.



<그림 11> 학식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아카데미 가운데.

## 10. 계 급

계급은 보호단체, 직업 조직, 군대에서 구분하기 위한 복식을 규정하는 지위의 또다른 형태이다. 특히 군복에서 중요시되며, 계급의 표시는 계급장에 의해 나타낸다. 계급이 붙어있지 않으면 장군과 사병을 구분할 수 없으며, 장교의 계급적 우월성도 나타내지 못한다.

##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ead의 능동적, 주제적인 자아(I)와 사회적, 객체적 타아(me)가 상호작용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현대 우리 나라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식학자인 Horn과 Kaiser의 이론을 따라서 10가지 상징성 체계를 분류하였다.

유니폼의 개념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정의하였으며,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Roach & Eicher의 개념을 따랐다. 또한, 유니폼은 문화에 따라서 변하며, 문화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랐다. 하나의 유니폼이 여러 상징을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 상징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현대 우리 나라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성별을 상징하는 유니폼은 보이 스카우트와 걸 스카우트, 수녀복과 사제복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연령 상징의 유니폼은 유치원생의 원복,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의 교복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유니폼은 착용자의 직업과 상황을 상징하였고, 성직자의 유니폼은 종교적 신념과 헌신의 상징이었다. 집단 소속을 상징하는 유니폼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단결심을 고취시키며, 집단의 목표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청결성을 상징하는 유니폼은 간호사, 요리사, 실험복, 식품회사의 유니폼 등으로 나타났다. 권위의 상징인 유니폼은 재판관의 가운데와 의사의 가운데, 경찰복과 군복 등이 있었다. 개인과 집단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유니폼에는 뛰어난 학식을 나타내는 대학교수의 각모와 가운데, 성직자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추기경의 복식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유니폼은 계급을 상징하는데 계급장, 장식, 색상 등에 따라 계급적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현대 우리 나라에 나타난 유니폼의 상징은 성별, 연령, 직업, 상황, 종교, 집단 소속, 청결성, 권위, 우월성, 계급 등이었다.

### 참고문헌

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84.
2. 칼 구스타브 융,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 집문당, 1985.
3. John Beattie, 최재석 역, 사회인류학, 서울 : 일지사, 1984.
4. Langner L., 박동준 역, 복장의 심리, 서울 : 유신문화사, 1981.
5. Thomas Carlyle, 양주동 외 역, 영미수필선, 서울 : 을유문화사, 1964.
6. White, Leslie A., 이문용 역, 문화의 개념, 서울 : 일지사, 1984.
7. 田中道一,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유니폼론, 일본 의생활 연구, Vol. 11, 1984.
8. Edward Sapir,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Symbolism", N.Y. : MacMillan Cpo. and Free Press, 1968.
9. Horn, M.J.,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10.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11. M.E. Roach & J.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 John Wiley & Sons. Inc., 1965.
12.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s*, N.Y. : The MacMillan Co., 1972.
13. Tamotsu Shibutani,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Mead George Herbert", N.Y. : MacMillan Cpo. and Free Press, 1968.
14. William A. Haviland, *Cultural Anthropology*,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8.